

【우리 소설, 우리말】

## 이문구, 고유어의 마지막 파수꾼

조남현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2000년도에 동인문학상을 수상한 이문구(李文求)의 『내 몸은 너무 오래 서 있거나 걸어왔다』(2000년 6월, 문학동네)는 「장평리 짙레나무」, 「장석리 화살나무」, 「장천리 소태나무」 등 8편의 중단편소설로 묶인 소설집이다. 이 소설집은 소설집 『관촌수필』(1977), 『우리 동네』(1981) 등과 마찬가지로 이문구가 우리 고유어를 살려 내고 지키는 데 남다르게 노력해 온 작가임을 잘 일러 준다. 이문구의 단편들 가운데는 경기도나 충청도 방언을 너무 많이 담아서 기본적인 문맥 파악조차 쉽지 않은 대목들을 여러 차례 보여 주는 것도 있었다. 이러한 작품들은 경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이문구는 작가는 자국어 را 재생시키고, 보존하고, 확대하는 임무를 지닌 존재임을 실천적으로 입증해 왔다. 이문구의 신작을 대할 때마다 그가 이번에는 우리말을 어떻게 구사하여 재미있고 감칠맛 나고 아름다운 표현을 해내었는가 궁금증을 갖게 된다. 이제 그 현장을 돌아보기로 하자.

(1) 그 개 잡은 디에 가서 조상이나 혈 늪이 워편 일루 보리밥 먹구 쌀 방구를 꾸나 했더라(23쪽)

(2) 소남풍에 개밥그릇 굴러 다니는 소리를 하며 대청에서 일어나 앉고(24쪽)

(3) 생긴 것은 꼭 이런데서나 살면서 바가지에 밥 푸고 호박잎에 건건이를 담아 먹게 생겼어도, 두름성 있는 구변 하나는 예배당이 큰집인지 작은집인지 모르게 사는 권사며 집사며가 되로 주고 말로 받기 십상으로 미끈딩하였다(41쪽)

(4) 말이 번드르허면 남로맹이라(47쪽)

(5) 그렇지만 신작로가 곧 황톳길이며 황톳길이 바로 황천길이라고 보면 갯벌을 가로지르는 개흙길이야말로 숨는 길이었고 숨는 길인즉슨 사는 길이었다(50쪽)

(6) 가갯집에서 소주로 초배를 하고 시내에서 맥주로 도배를 하다가 날이 환해서야 택시를 타고 온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이다(93쪽)

(7) 학문이는 또 성질이 꼭해서 여간내기가 아니며, 부자지간에 주고 받는 말에도 앞뒤가 종소리 다르고 징소리 다르듯이 분명하여, 사흘은 바람 잡으로 다니고 나흘은 구름 잡으로 다니는 허풍선이답지 않게 우악스럽고 모진 데가 있는 아비에게(135쪽)

(8) 가만히 보면 으레겐 소수 의견이 통그러져서 꼭꼭 다수 의견에 안 다리를 걸어대쌍구 말여. 유명한 동네지.(중략) 집안에는 참 신줏단지가 하나 있는 게 좋을는지 몰라두 동네에 웬숫단지가 있어서는 안 되겠더라 니께. 안 그류(145쪽)

(9) 공산작에 술꺽테기 비어지듯이 뻘쭙하고 불그러지면서 누구보다도 자주 나부대는 것이었다(237쪽)

(10) 나는 소 팔러 가는디 개 따러나서듯이 그냥 따러나서봤슈(239쪽)

(11) 우덜 같은 지게공학과 출신은 허리가 두 토막이 나게 뛰어봤자 잘 되어 새 마을 지도자루 찍허는겨(240쪽)

이상의 표현들은 한결같이 웃음을 유발한다. 이러한 구절들은 재미있는가 하면 날카로운 느낌을 주고 익살맞은가 하면 농익은 느낌을 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위에서 (1), (2), (3), (8), (10)은 작중인물의 입을 통해 나온

것이며 (4), (5), (6), (7), (9)는 화자나 작가가 서술해 놓은 것이다. 이를 보면 이문구는 날카롭고, 재미있고, 익살맞고, 농익은 표현을 자연발생적으로 내보인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계획하고, 의도한 것임을 알게 된다. 독자로 하여금 웃음을 참지 못한 채 혼자 깔깔거리게 하거나 무릎을 탁 치게 하는 표현은 어떤 경우에 잘 나타나고 있는가. 우선, 이문구의 정확하고 재미있는 표현은 비유법을 즐겨 취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임을 발견할 수 있다. “보리밥 먹구 쌀방구 쑈다”, “소남풍에 개밥그릇 굴러다니는 듯한”, “바가지에 밥 푸고 호박잎에 건건이를 담아 먹게 생겼다”와 같은 비유적인 표현은 참신한 느낌마저 준다. 물론 위의 표현을 비유적인 표현으로만 일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에서는 대조법이, (5)에서는 황톳길-황천길, 개흙길-숨는 길-사는 길과 같은 연상이, (7)에서는 비교법이, (8)에서는 과장법이 빛을 내고 있다.

“입을 날일(日) 자로 찢었다가 가로왈(曰) 자로 찢었다 하며 넋덕을 떨어대어 숯제 입을 다무는 수 밖에 없었다”(139쪽),

“아따 아줌니는, 그렁잖어두 헛덜 읊는 동지슬달에 먹은 그릇 설그지허기두 빠듯힐 텐디 위느새 지자제까장 연구를 다 허셨다”(237쪽),

“성님이 술을 끊으셔? 아싸리 말해서 성님은 술을 끊는 것버덤 숨을 끊는게 더 빠를규”(243쪽),

“케비에쓴가 엠비썬가서 <사랑과 진실>이라나 뭐라나를 헐 때는 약이 읊어 못 고치는 찔걱눈이마냥 눈물을 달구 봐두, 직 애비가 빼에 맺힌 소리를 헐 적에는 저러구 비웃어가면서 컷등으루 듣는 늪이 바루 저늪이여”(265쪽)

이들은 웃음을 참을 수 없게 만든다. 작가의 유모어 감각이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은 것들이다. 이런 표현들은 겉질은 해학으로 되어 있지만 속에는 비판 정신이라는 이름의 씨앗을 품고 있어 가끔 목에 걸리게 만든다. 이러한

표현들은 이문구처럼 우리말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없이는, 또 우리말을 지키고 살려 나가겠다는 사명감이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것들이다.

미소를 짓게 하든 낄낄거리게 만들든 웃음의 철학에 뿌리를 둔 표현은 대상을 정확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의식의 산물로 볼 수 있다. 이문구의 소설에서 정확한 표현은 이따금 미문의 형태로 드러난다.

(1) 들고 나고 한 능선도 여리고 부드러운 선화(線畵)였다. 시야를 들이굽혀 물면으로 옮겼다. 수심(水心)은 달빛을 입어서 으늑하고 수변은 앞동산의 산 그림자가 먹어들어, 혹시 그믐계의 초저녁을 한 귀통이 떼어다가 담가놓은 것이나 아닌가 싶게 어두웠다. 물녘의 나무들은 마치 이름난 산에서 명이 다한 고사목들처럼 우듬지 하나도 까딱하지 않으면서, 오랜 세월을 그렇게 하고 견디어냈다는 투로, 자못 묵중하게 서 있는 자세를 여간해서는 허물어뜨릴 것같은 기미가 아니었다.(169쪽)

(2) 그는 그날도 거실의 창가에 매달려서 달빛에 피어난 수면을 낚고 바다를 보고 있었다. 뜨락에 내린 서리에도 달빛이 알알이 피어나고, 서낭당이 돌아로 굽이진 자갈길도 눈길처럼 피어난 달빛이 그를 부르고 있었다. 그는 그렇지만 한눈을 팔지 않았다. 머지않아 상엿집 모퉁이에서부터 그물로 달빛을 걸어 오는 배질이 나타날 터이기 때문이었다.(195쪽)

(1)과 (2)에서 “수심은 달빛을 입어서 으늑하고”, “수변은 앞동산의 산그림자가 먹어들어”, “달빛에 피어난 수면”, “달빛이 알알이 피어나고”, “달빛을 걸어 오는 배질” 등은 시적 표현의 모범에 넣을 수 있다. 이러한 문구들은 이문구가 인간 심리와 행위의 묘사에 능한 것 못지 않게 자연 묘사에도 능숙함을 잘 보여준다. 작가는 인물화도 잘 만들어 내어야 하고 풍경화도 잘 빚어내어야 함을 이문구는 실천으로써 일러 주고 있다.

이 소설집에 나타난 문장들은 대체로 긴 편은 아니다. 그의 소설에서는

장거리 문장은 별로 나타나지 않으나 여러 종류를 한 자리에 모아 놓을 때에는 자연스럽게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 (1)은 까치, 까마귀, 멧비둘기, 빠꾸기, 두견이, 피꼬리, 후투티, 할미새, 물총새 등과 같은 여러 종류의 새를 제시하고 있고 (2)는 은행나무, 수나무, 호두나무, 석류나무, 자두나무, 살구나무 등과 같은 여러 종류의 나무를 제시하고 있다.

(1) 안팎동네에 사는 까치와 까마귀와 멧비둘기가 하루에도 열두 번씩 들렀다가 가고, 제철에 맞추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건너온 빠꾸기 두견이 피꼬리 후투티 찌르레기 쪽독새 휘파람새 할미새 물총새 같은 새들이 여름내 정자로 알고 쉬면서 죄다 둥지만은 꺼리는 것도, 구새먹은 지 여러 해 된 둥치며 우죽에 자자분하게 붙어 있는 삭정이와 낭창거리는 가지가 화려지나 물거리처럼 보금자리를 틀기에는 미덥지가 않은 탓일 터이었다. (203-204쪽)

(2) 은행나무도 마주 서야 한다는 속담이 있지만 동네에 수나무가 없어서 은행을 두어 되밖에 못하는 은행나무와, 심은 지가 몇 해 안 되어 먹으려면 아직도 먼 호두나무며, 울에 처음으로 꽃을 본 석류나무며, 해거리 하나는 꼭 찾아서 하는 자두나무며, 열매가 익기도 전에 다람쥐가 모두 훔어가고 마는 앵두나무와 살구나무는, 모두가 같은 마당 가에 있다고 해도 앞이 트인 저수지 쪽으로 서지 않고 뒤꼍의 굴뚝에다 줄을 맞추어 뒷동산 기슭에 바투 늘어서 있었다. (204쪽)

이렇듯 여러 종류를 한 자리에 나열하는 것은 대상에 얽힌 풍부한 지식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이 소설집에서 이문구는 특정한 방면의 지식을 자랑할 때 장문을 취하곤 하는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 이문구의 소설은 일반인들은 알아 듣기 어려운, 또 국어사전을 펼쳐 보아야지만 그 뜻을 알 수 있는, 그리고 사전만 갖고는 백 프로 이해되지 않는 단어들을 쓰는 것으로 이

름이 나 있다. 그의 소설은 마치 독자들의 어휘력을 측정하려는 듯한 분위기를 던져 준다. 국어국문학을 전공하는 사람들마저도 주눅들게 만든다. 소설집 『내 몸은 너무 오래 서 있거나 걸어 왔다』에서 후배 작가와 시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독자들도 살려내어야 할 고유어들을 추려내면 다음과 같다.

동사로는 씹둑거리다(수다를 떨다), 둘러방치다(무엇을 빼돌리고 다른 것을 놓다), 깃들이하다(귀가하다), 모르쇠를 대다(모른다고 잡아떼다), 이르집다(들추어내다), 너털대다(함부로 까불다), 손사래치다(손을 휘젓다), 곱삶다(두번 삶다), 중절거리다(계속 중얼거리다), 늑줄을 놓다(자유롭게 해 주다), 엉너리를 치다(수단껏 남의 환심을 사다), 동살이 잡히다(동이 트다), 지싹거리다(제가 좋아하는 것만 자꾸 요구하다), 해찰하다(딴짓을 하다), 묵새기다(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슬쩍 넘겨 버리다), 비라리를 치다(구구한 말을 하여 남에게 요구하다) 등이 있다.

형용사로는 일매지다(가지런하다), 폭폭하다(자꾸 찌르다), 흥덩흥덩하다(물이 넘칠 정도로 많다), 오사바사하다(부드럽고 사근사근하다), 굵죄이다(약점을 잡히다), 격실격실하다(말과 행동이 활발하다), 뜨르르하다(능통하다, 널리 퍼지다), 두리두리하다(얼굴이 크고 둥글다), 짐짐하다(음식 맛이 아무 맛 없이 찝찝하다), 짓수긋하다(저항할 뜻이 없이 풀기가 없다), 점직스럽다(미안하고 부끄럽다), 물썩하다(물러터지다), 귀살스럽다(사물이 어지럽게 널려 있다), 지닐성있다(오래 지니다), 청처짐하다(느슨하다), 덧들다(다시 잠이 오지 않는다), 허우룩하다(믿고 의지하던 사람과 헤어져 마음이 허전하다), 무람없다(버릇없다), 어근버근하다(짜임새가 벌어져 있다), 두동지다(서로 모순되다) 등이 있다.

부사로는 박부득이(아주 급박하여), 부랴사랴(아주 급하게), 존조리(조리 있고 친절하게), 발밤발밤(한결음한결음), 지딱지딱(서둘러서, 함부로), 드레드레(물건들이 많이 매달려 있는 모양) 등이 있으며 명사로는 허탕지거리(혼자 욕비슷하게 하는 말, 예:제길헐), 움살이(아주 친하고 가까운 사이), 건건이(반찬), 든바다(근해), 난바다(원해), 움나위(꿈쩍), 말전주(이간질), 말머

리에(첫날 밤에 뱀 아이), 장돌림(장돌뱅이), 과녁빼기(뚝바로 건너다 보이는 곳), 뺏성(발각 내는 짜증), 모개홍정(한데 몰아서 하는 홍정), 산돌림(사방으로 돌아다니며 한 줄기씩 오는 소나기), 잘코사니(미운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 고소하게 여기며 하는 말), 짹짹미(남모르게 자기들끼리 하는 약속) 등이 있다.

이 가운데서 재생 가능성과 보존 책임감이 높은 단어들을 추려 내어 그 단어들이 쓰인 문장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모르쇠를 대다 : 천지가 개벽하여 혹 갯물이 민물이 되는 수는 있을지 몰라도 아내가 은돈이 내외에게 한 번 먹은 마음은 그제 아니었다. 그래서 은돈이에 대한 아내의 푸념에는 그저 모르쇠를 대는 것이 수였다.(모른 척하는 것이 수였다)(16쪽)

(2) 늑줄을 놓다 : 병아리 몰어 죽인 강아지마냥 옆에서 이쪽저쪽 눈치만 보고 있던 풍근이가 형의 얼굴에 웃음기가 비치자 자신감이 생기는지 늑줄을 놓고(긴장을 풀고) 끼여들었다.(127쪽)

(3) 엉너리를 치다 : 그는 지나가는 말로 엉너리를 쳐서(환심을 사서) 김두흠이란 별명 때문에 홀리지 않을 수 없는 웃음을 눈가림하였다(161쪽)

(4) 동살이 잡히다 : 그는 동살이 잡힐 때까지 오던 잠도 덧들었다.(동틀 때까지 한 번 깸 잠을 다시 이루지 못했다) 느실꺼서 들린 것이 분명한 그 이름 모를 소리의 이름에 매달리는 통에 덧들은 것(잠 못 이룬 것)이 아니었다.(176쪽)

(5) 해찰하다+지식거리다 : 저마다 제금나서 나가 사는 아들 덕업이 선업이 학업이의 동무들이 낚시를 하러 왔다가 먹을 물을 길러 오든가, 된장이며 고추장을 얻으러 와서 시척지근한 이야기로 지식거리고(귀찮게 하고) 해찰할 때(판짓할 때)마다 웅이 입막음으로 늘어놓는 것도 번번히 이 녹음을 추어대는 말이었다.(202쪽)

(6) 격실격실하다 : 그의 아내는 격실격실(시원시원)하여 흥이 때 아니게 찾아가도 싫어하는 기미가 없었고 며칠씩 묵색이며(눌러앉아) 양식을 축내고 있어도 그만 가 쫓으면 하는 내색을 얼비치지 않았다.

(7) 뜨르르하다 : 흥은 이 근방의 갯벌이라면 일 년 달 갯벌을 뒤적거리서 사는 갯것장수들 못지 않게 뜨르르하였다.(잘 알았다) 갯벌만 그런 것도 아니었다.(46쪽)

(8) 물썰하다+지닐성 있다 : 따라서 생기는 것이 있는 자리는 애초에 쳐다도 볼 수가 없었다. 또 학연이나 지연에 설혹 기댈 만한 데가 있다고 해도, 천성이 물썰하면서도(물러터지면서도) 꼭한 데가 있어서 주변성 있게 인사를 차린다거나, 죄임성 있게 관계를 지탱하거나, 지닐성 있게 잇속을 챙겨나갈 인물이 아니었다.(184쪽)

(9) 어근버근하다 : “그나저나 상제덜이 워째 잔뜩 볼물어가지구 서루 어근버근허는 것(어긋나 버린 것)같으니 웬일이래유. 그새 뭘 일이 있었담유?”(255쪽)

(10) 존조리 : 그녀가 무슨 푸념으로 부아를 돌우고 무슨 냇두리로 오장을 뒤집어도 그는 참을성있게 줯대를 잡고 존조리(차근차근) 일러두었다.(104쪽)

(11) 지딱지딱 : 한최고의 성씨는 물론 한인데, 가갯집 노파가 술이 가장 세다는 뜻이 아니라 첫째는 속장이 시원시원해서 매상을 올려 주는 데에 엄지손가락일 뿐만 아니라, 걸장이 수월수월하여 외상값을 지딱지딱(제때제때) 갚는 데에도 동네에서 갯양태 위의 갯모자라하여 최고라는 별명을 선사했다는 것이었다.(172쪽)

(12) 움살이+오사바사한 : 어려서는 뒷간도 함께 다니면서 우애를 나눈 움살이(형제같은 사이)였으나, 각자가 짝을 만나고부터 서로 뜻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달라졌을뿐더러, 씨가 오사바사한(사근사근한) 사내라면 누구보다도 질색하는 성미고 보니 언제 보아도 마뜩잖은 것이 은둔이었던 것이다. (26쪽)



(13) 뻗성 : 그녀도 웃느라고 이날껏 말 한마디를 저 본 적이 없는 데다, 가끔씩 속에 있던 말을 할라치면 말귀가 어두운 것이 답답하여 뻗성(짜증)이 난 소리로 부르대게 마련이었다.(108쪽)

(14) 산돌림 : 하지만 약비 한 보지락은 고사하고 산돌림(여기저기 오는 소나기) 한 줄금 지나갈 기미조차 없이 하늘은 여전히 불별만 한 고등일 따름이었다. 게다가 오늘사말고 바람 한 점 없이 나뭇잎 하나 까딱하지 않아서, 한나절내 그늘에 앉아 툭 트인 저수지를 내다보고 있는 데도 목만 마르지 당치 서늘하지가 않았다.(200쪽)

(15) 짹짹미 : 언넌이는 숨도 안 쉬고 주워섬겨썰더니 누가 알면 안 되는 것을 우리끼리만 알고 짹짹미(밀약)를 할 때처럼, 갑자기 눈을 박아뜨면서 속껍질만 남긴 목소리로 다음 말을 하였다.(277쪽)

(8)에서 ‘물썩’, ‘주변성’, ‘죄임성’, ‘지닐성’ 등과 같이 조어의 성격이 비슷한 말이 연이어 나오게끔 배치한 것은 작위적이기는 하지만 뛰어난 표현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11)에서는 ‘시원시원’, ‘수월수월’, ‘지딱지딱’ 등과 같은 중첩어의 연이은 배치도 눈에 뜨인다. 이런 것을 보면 작가 이문구가 일반인들은 잘 쓰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을 선택해서 배치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며 계산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15)에서 맨 앞에 나와 있는 단어들은 ( )에 들어 있는 어구로 바꿀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르쇠를 대다/모른 착하다’, ‘엉너리를 치다/환심을 사다’, ‘옴살이/형제같은 사이’, ‘산돌림/소나기’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뜻은 비슷하지만 뉘앙스의 차이는 메꿀 길이 없다. 옴살이, 뻗성, 산돌림, 짹짹미 등은 단 하나의 다른 단어로 대체할 수 없는 묘미를 지니고 있다. 이처럼 다른 단어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은 그만큼 단어가 매력 있고 존재 가치가 충분하다는 의미가 된다. 우리말에다가 넓이와 깊이 그리고 무게를 부여하려면 제2의 이문구, 제3의 이문구가 나와야 한다.